삶 속의 앎, 앎 속의 삶으로

책 만들기에서 선생님과 함께 읽는 ≪성의 역사≫까지 다양한 청소년 여름 강좌 줄이어

8월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황금 같은 여름 방학 기간이다. 방학은 말 그대로 학교 수업에서는 놓여나는 기간이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학과 공부를 보충해야 하는 또 다른 학업의 연장일 뿐이다.

그런데 교과서와 학원 수업에서 벗어나 특별한 책과 함께 방학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있다. 삶은 닥나무 껍질을 두드려 종이를 만들고, 선생님과 함께 푸코의《성의 역사》를 읽는다. 청소년 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여름 강좌를 듣는 청소년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별한 여름 강좌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생각해 내고는 두 눈을 빛내고, 두 귀를 활짝 연다.

공간 플러스의 책 만들기, 《어린 왕자》 새로 읽기 등

지난 7월 19일 공간 플러스 건물 옥상에서는 나무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한창이다.

"더 힘껏 두드려야 되요. 그래야 나무껍질이 편편해져서 종이에 가까운 형태를 갖춥니다."

이번 공간 플러스의 청소년 여름 강좌 중 '책을 만들자!'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량 강사는 원시적인 종이의 원료가 되는 백다기와 피다기를 나무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수강생들 사이를 누비며 독려했다. "너무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종이 형태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반응도 가지가지다.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나무껍질을 두드리는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이 날은 '책을 만들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수강생들이 직접 종이의 탄생을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종이 뜨는 틀을 만들고 그에 맞춘 크기로 삶은 닥나무 껍질을 두드려 원시적인 형태의 거친 종이를 완성하는 일이다.

박소량 강사는 말한다.

"옛날 사람들이 종이 만들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따

르는 겁니다. 앞으로 두 달의 강좌 기간 동안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 계획입니다.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에 내용을 넣고, 책의 형태로 묶고 하는 식으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완성된 책은 합평회를 하고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힘들겠지만 보람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강좌에 참가한 고등학생 구혜선 양은 언니의 소개로 여름 강좌를 듣게 되었다며 평소에도 책의 제작 과정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청소년 여름 강좌를 기획한 공간 플러스 박성관 씨는 "청소년들은 입시 때문에 기성세대와 극심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간 플러스는 그런 청소년을 위해 앎과 삶의 거리를 좁혀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체제는 누적된 학문, 그것만 강조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체험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을 통해 좁게는 연령이 다른 강사와 청소년이 서로 소통하고, 넓게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공간 플러스에서는 '책을 만들자!' 외에도 생택쥐페리의《어린 왕자》새로 읽기, 영화에서부터 문학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에 표현된 만남의 다양한 표정들을 살펴보는 표현 강좌, 10대들의 호기심을 몸, 성, 가족 등의 주제로 풀어보는 강좌까지 다양한 여름 강좌가 7월 15일부터 개강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7살 민하와 같이 '책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는 민하의 어머니는 "작년에도 이곳에서 하는 여름 강좌를 들었는데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흔치않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 참여하려고 애쓰는 편"이라며 거친 종이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닥나무 껍질을 힘껏 두드렸다.

문장의 인문과학 특강, 부산가톨릭대학의 청소년 고전대학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문학사이트 '문장' (www.munjang.or.kr)이 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인문과학 특강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강좌는 3월 말 '새봄맞이 청소년 특강' 에 이어 문장에서 마련한 두 번째 청소년 강좌로 서강대 장영희, 이화여대 최재천, 부산대 이왕주 교수 등이 문학과 과학, 철학을 테마로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선사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19일부터 21까지 1차 특강이 이루어졌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2차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의 저자 최재천 교수의 '동물행동학 - 과학과 사회의 관계'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크레듀의 한 강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유전자 변이에 대해 설명하며 개구리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최 교수의 성대모사 때문이다. 특강에 참가한 학생들은 두 눈과 두 귀를 활짝 열고 평소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유전자의 법칙에 관한 최 교수의 설명을 듣는다. 이 강좌를 기획,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양연식 씨는 "지난번 봄 특강의 반응이 좋아서 다시 여름 특강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특강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곧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책이 나온 후에는 이 강좌를 들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쫑파티 형식의 만남을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문장의 게시판에 '스누피' 라는 이름으로 특강 후기를 올린 한 청소년은 "1차 강의에 세 번 다 참여했는데 설명이 너무 쉽고 재미있어서 어려운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지난 3일 동안 영문학, 철학, 동물행동학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지방에서는 부산가톨릭대학 인문학연구소(소장 이부현 교수)에서 '청소년 고전대학' 을 개최하는 것이 눈에 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청소년 고전대학' 은 학생이 한 권의 책을 2주에 걸쳐 읽고, 교사는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선정된 고전은 플라톤의《소크라테스의 변명》, 노자의《도덕경》, 푸코의《성의 역사》등이다.

이부현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고전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그 내용을 짜깁기하는 수준을 넘어 고전의 살아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 직접 시를 써볼 수 시 창작 강좌도 있다.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학교(8월11~13일)가 바로 그것. 신경림, 황동규, 이근배, 오세영, 신달자 시인 등이 강사로 나서 시 창작에 관한 비법을 전한다. 시인들과의 숲 속 대화, 주먹밥 산행, 참선과 발우공양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취재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